

전국 공·항만(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월간 정보지

Pathogens & Vectors Surveillance Monthly Report
Vol. 2, No. 5, Aug. 18, 2026

본 정보지는 질병관리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로, 방역 관문인 전국 공·항만 검역구역 내에서 감염병 매개 모기 분포 조사 및 모기 내 감염병 원인 병원체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를 사업 참여기관과 시·도 지자체 및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오니,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관님 한마디 !!

매개체 감시를 통해 모기 서식 환경을 파악하고 성과를 낼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이 코너는 '26년 간담회(3.4.)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PART I. 최근 동향

PART II. 감시 현황

PART III. 환경인자 및 기후변화

PART VI.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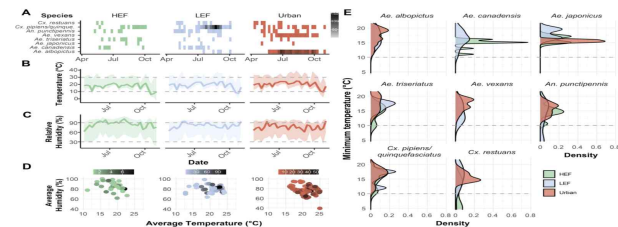
PART I

최근 동향

【 매개체 연구 】

▶ “도시 조경의 역설: 우리가 심은 꽃이 모기를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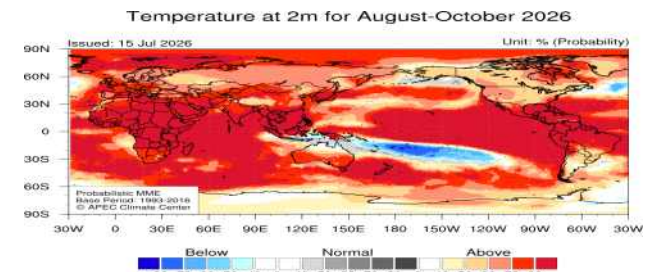
모기는 피만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평소에는 꽃꿀이나 나무 수액 같은 '당분'을 주식으로 삼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시 조경이 역설적으로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참고문헌: Morgen Vander Giessen et al. Effect of landscape heterogeneity on mosquito abundance and sugar feeding behavior. *Journal of Medical Entomology*, 2026, 63(1)

【 기후변화 】

▶ '26년 7월 한반도는 평균기온 26.8℃로 1994년, 2025년에 이어 3위, 평균최저기온(23.4℃) 1위, 폭염일수 8.9일(5위), 열대야 일수 9.7일로 역대 최다. 강수량 220.0mm로 평년 대비 72.3% 수준,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정체전선 영향받아 지역별 강수량 큰 차이, 경남 지역 강수량(68.0mm) 역대 최저



※ 출처: APEC 기후센터 웹사이트

【 주 요 정 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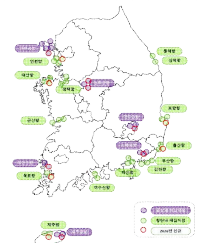
- ▶ '26년 7월 검역구역 내 모기 채집 결과 총 17종 10,808마리 채집
- ▶ 채집된 모기의 우점종 비율은 [빨간집모기¹⁾ > 흰줄숲모기²⁾ > 얼룩날개모기류³⁾ > 반점날개늪모기⁴⁾ 순을 보임
- ▶ 전년 동기기간과 비교하여 3,931마리 증가하여 채집되었으며 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대폭 증가함

* 모기 매개 감염병 ①일본뇌염 ②뎅기열, 황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③말라리아(참고자료 IV-2)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6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 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 감시기간 : 2026년 3월~11월(9개월), 월 2회(3, 11월은 1회 실시)
- 감시지점 : 검역구역 내 공항만 20개소(총 53개 지점)
- 감시대상 : 모기 종 분포 및 감염병 원인병원체 6종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일본뇌염 및 치쿤구니아열 원인병원체)
- 참여기관 :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매개체분석과), 5개 권역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감시 지점



* 검역구역이란 검역조사를 위해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 등 특정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이는 검역법(법률 제20323호, 2024. 02. 20.,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감시 정보 분석 시점에 따라 일부 통계 변동 가능(누리집 정보: 질병관리청 > 기관소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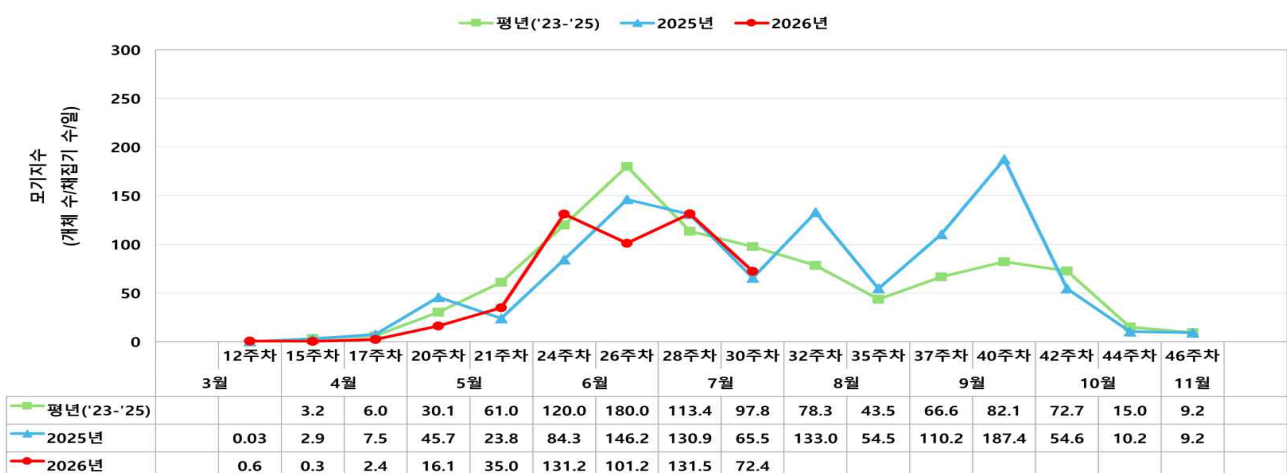
PART II 감시 현황

- ▶ 7월 검역구역 내 53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17종 10,808마리가 채집 (전년 동월 대비 3,931마리 증가) * 무안국제공항; 잠정 폐쇄로 미채집
- ▶ 채집된 모기 중 빨간집모기가 79.8%(8,621마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571건 모두 음성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 ▶ 국내 미서식 감염병 매개 모기종인 이집트숲모기, 헤모고거스속 등은 채집되지 않음

II-1. 2026년 7월 감시 결과

【요약】

- ▶ 7월 전체 53개 지점에 대한 평균 트랩 지수(Trap Index, T.I.)는 102.0개체로 전년 7월(98.2개체) 대비 3.8개체 증가
 - ▶ 7월은 전월(6월, T.I. 116.2) 대비 소폭(12.2%) 감소
 - ▶ 7월 채집된 모기의 우점종 비율은 빨간집모기(79.8%) > 흰줄숲모기(8.3%) > 얼룩날개모기류(3.1%) > 반점날개숲모기(2.2%) > 금빛숲모기(1.8%) > 큰검정들모기(1.1%) > 토고숲모기(1.0%) > 한국숲모기(0.9%) > 등줄숲모기(0.9%) > 작은빨간집모기(0.6%) > 금빛아래숲모기(0.3%) > 줄다리기집모기(0.1%) > 애조숲모기(0.1%) > 노랑늪모기(0.1%) > 동양집모기(0.1%) > 반점날개집모기(0.1%), 산숲모기(0.1%) 순을 보임
 - ▶ 주요 매개체 중* 중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금빛숲모기, 얼룩날개모기류 개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 주요 모기 매개 감염병 및 발생원(참고자료 IV-2)
** 세부 통계자료(참고자료 IV-2)
- ▶ '26년 7월(9회차/16회차)까지 채집된 모기의 T.I.는 평균 54.5개체로, 전년(56.3개체) 대비 1.8개체 낮은 수준을 보임



— (붉은 실선): 2026년 전국 53개 지점의 모기 지수 누적 그래프

— (파란 실선): 전년도(2025년) 전국 36개 지점의 모기 지수 누적 그래프

※ Trap Index (T.I.): 개체수/트랩 수/일, 하룻밤에 1대의 트랩에서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수

II-2. 권역별 주요 종 분포

【 권역별 요약 】

- ▶ '26년 7월 채집된 모기는 총 17종 10,808마리로, 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 모기의 가장 높은 비율(79.8%)을 차지
- ▶ 모든 권역에서 빨간집모기 채집률(75.4~84.0%)이 가장 높았음
- ▶ 개체수는 수도권에서 3,450마리로 가장 높은 채집률을 보였으며, 모기 종 분포는 수도권 13종, 충청권 12종, 호남권 10종, 경남권 9종, 경북권 9종 채집됨

• 권역별 채집 우점종(상위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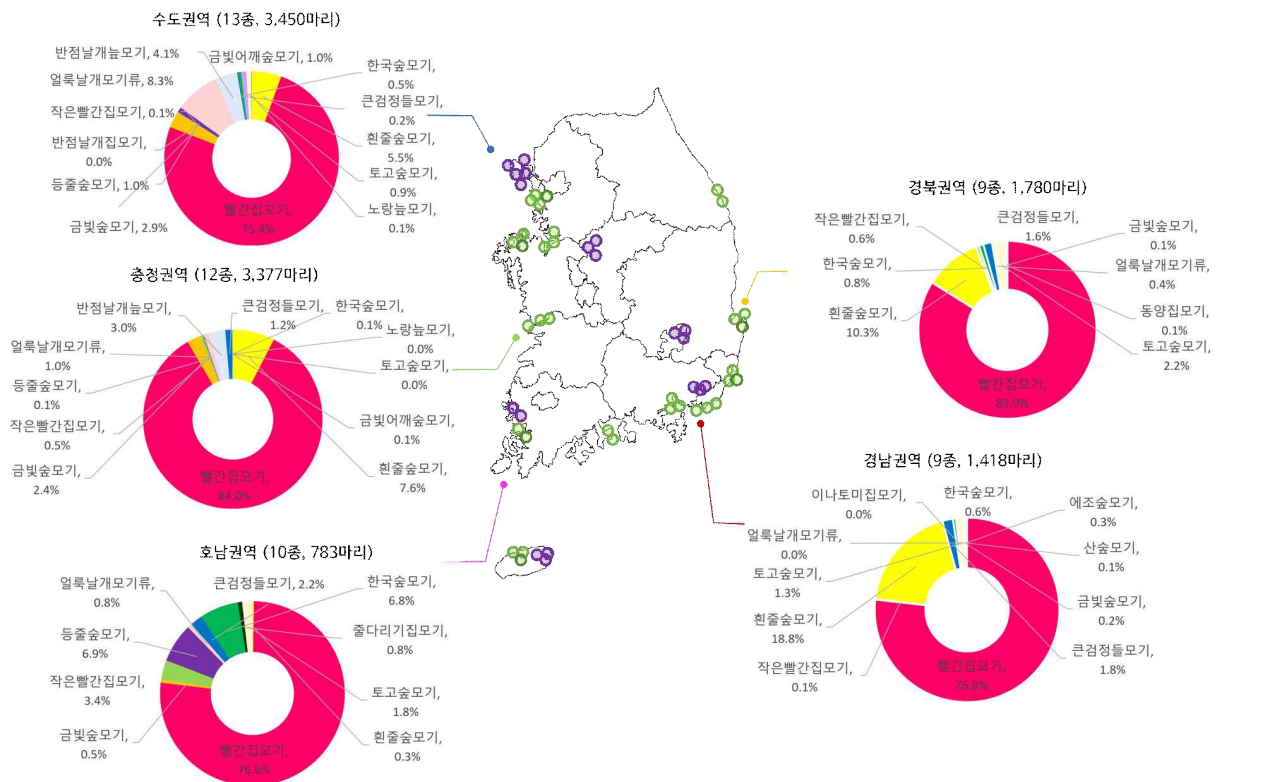
수도권: 빨간집모기(2,600마리, 75.4%) > 얼룩날개모기류(286마리, 8.3%) > 흰줄숲모기(190마리, 5.5%)

충청권: 빨간집모기(2,838마리, 76.6%) > 흰줄숲모기(255마리, 7.6%) > 반점날개숲모기(100마리, 3.0%)

호남권: 빨간집모기(600마리, 76.6%) > 등줄숲모기(54마리, 6.9%) > 한국숲모기(53마리, 6.8%)

경북권: 빨간집모기(1,494마리, 83.9%) > 흰줄숲모기(183마리, 10.3%) > 토고숲모기(39마리, 2.2%)

경남권: 빨간집모기(1,089마리, 76.8%) > 흰줄숲모기(267마리, 18.8%) > 큰검정들모기(26마리, 1.8%)



토고숲모기(<i>Ochlerotatus togoi</i>)	빨간집모기(<i>Culex pipiens</i>)	큰검정들모기(<i>Amigeres subalbatus</i>)
금빛숲모기(<i>Aedes vexans</i>)	작은빨간집모기(<i>Culex tritaeniorhynchus</i>)	등줄숲모기(<i>Ochlerotatus dorsalis</i>)
얼룩날개모기류(<i>Anopheles</i> spp.)	한국숲모기(<i>Ochlerotatus koreicus</i>)	줄다리기집모기(<i>Culex vangans</i>)
반점날개숲모기(<i>Culex bitaeniorhynchus</i>)	동양집모기(<i>Culex orientalis</i>)	흰줄숲모기(<i>Aedes albopictus</i>)
금빛어깨숲모기(<i>Aedes lineatopennis</i>)	노랑숲모기(<i>Coquillettidia ochracea</i>)	에조숲모기(<i>Aedes esoensis</i>)
반점날개집모기(<i>Culex bitaeniorhynchus</i>)	산숲모기(<i>Ochlerotatus oreophilus</i>)	

※ 국내 미서식 감염병 매개 모기종인 이집트숲모기, 헤모고거스속 등은 채집되지 않음

PART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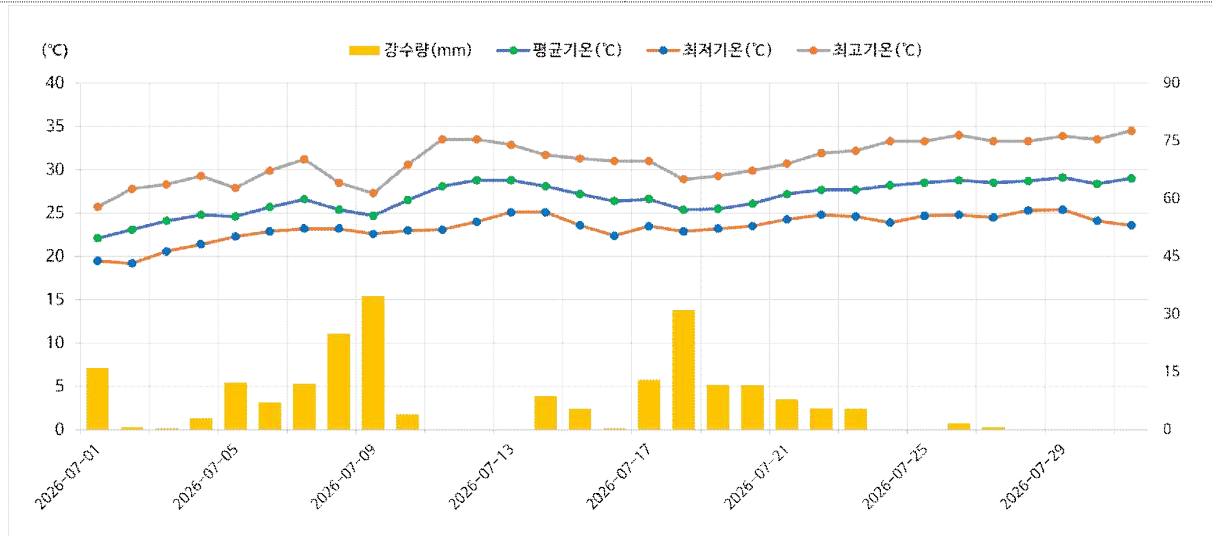
환경인자 및 기후변화

【 기온 】

-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평년(24.6℃)보다 2.2℃ 높았으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작년(27.1℃) 보다는 0.3℃ 낮았음
- ▶ 10~17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음. 태풍(제9호 '바비')이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확장한 가운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도 우리나라 상공으로 확장하여 영향을 주었음
- ➔ 7월 채집 기간(7.6./7.20) 53개 채집 지점의 평균기온은 각각 26.0℃, 26.2℃로 전국 평균기온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측됨

【 강수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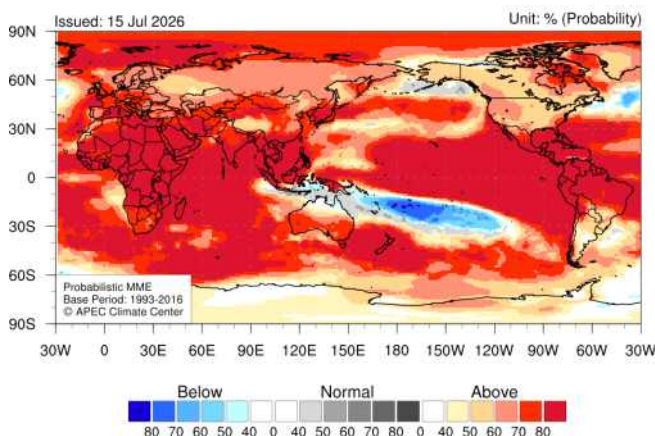
- ▶ 7월 전국 강수량은 220.0mm로 평년(296.5mm) 대비 72.3% 수준으로 적었고, 작년(249.0mm)보다 29.0mm 적었음. 강수일수는 13.0일로 평년(14.8일)보다 1.8일 적었음
- ▶ 7월 강수의 뚜렷한 특징은 강수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임. 중부지방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 특히, 경남은 강수량이 68.0mm로 평년(304.7mm)의 21.9% 수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음
- ➔ 7월 2회차의 경우 많은 비로 인해 모기 발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
- * 모기는 일일 강수량이 75.0mm 이상이거나 15일 동안 총 강수량이 150.0mm 이상일 때 발생이 감소



※ 참고자료 : 기상청 보도자료(2026년 7월 기후특성). 기온·강수량 분석(전국) 일자료기간 :2026-07-01~2026-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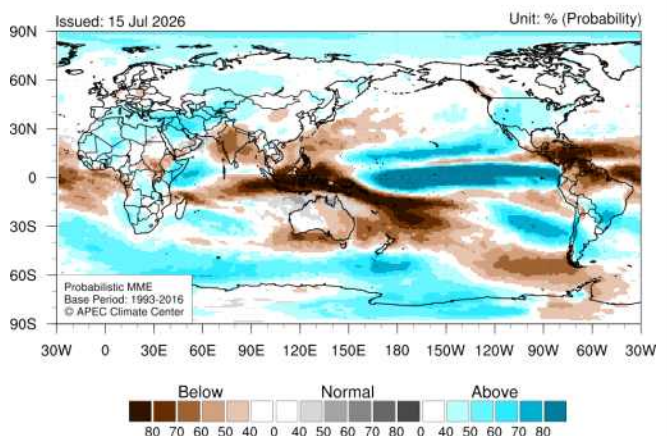
【 2026년 8월 기온 전망 】

Temperature at 2m for August-October 2026



【 2026년 8월 강수 전망 】

Precipitation for August-October 2026



※ 참고자료 : APEC 기후센터 웹사이트, 동아시아 다중모델 8월 예측정보(2026년 7월 15일 발표)

PART IV

참고 자료

IV-1. 최근 매개체 연구 동향

□ 도시 조경의 역설: 우리가 심은 꽃이 모기를 키운다

모기는 피만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평소에는 꽃꿀이나 나무 수액 같은 '당분'을 주식으로 삼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시 조경이 역설적으로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도심 정원에서는 '흰줄숲모기'가 전체의 81.3%나 발견되었다. 이 모기들은 몸집이 작아 자주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데, 도시의 화려한 관상식물들이 끊임없이 당분을 공급해 주는 밥상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살충제만 뿌릴 게 아니라, 모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줄이는 등 '도시 조경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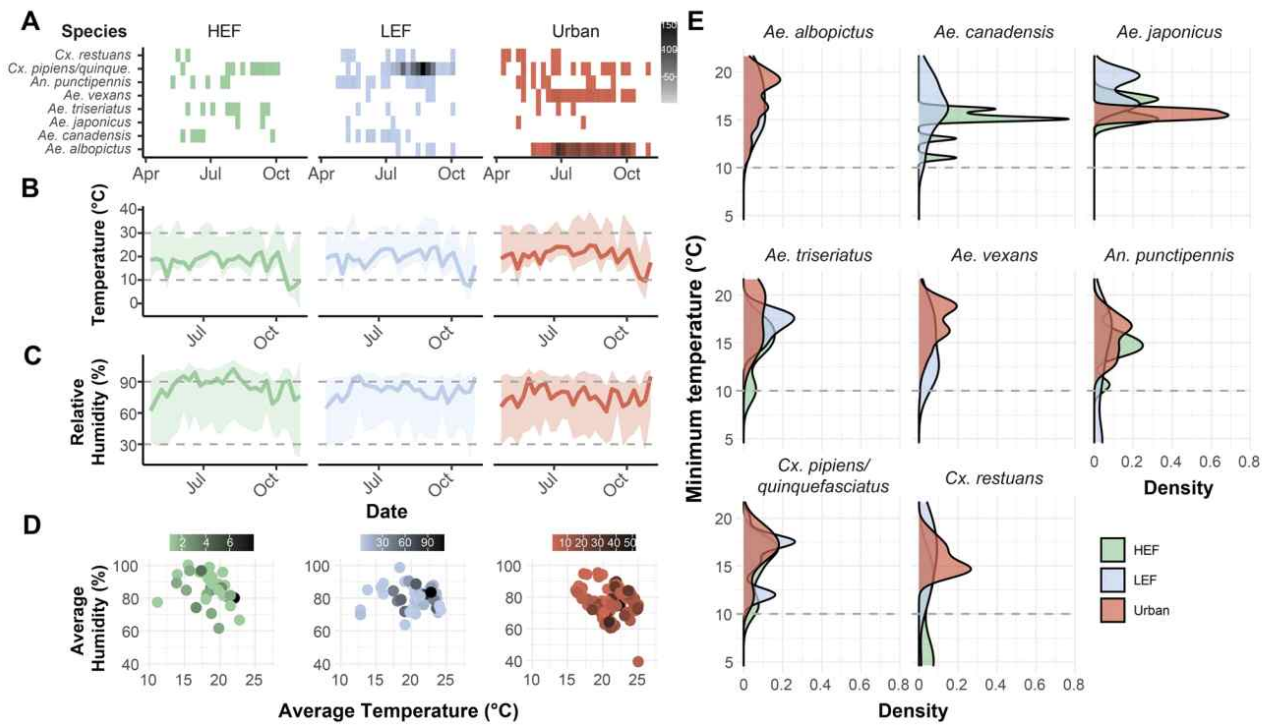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흔히 모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평상시 암컷과 수컷 모기 모두의 주식은 다른 아닌 꽃꿀이나 나무 수액 속에 든 '당분'이다. 비행하고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를 바로 이 식물성 당분에서 얻는 것이다.

최근 저명한 의학곤충학 학술지(*Journal of Medical Entomology*)에 발표된 논문은 바로 이 '모기의 식생활'과 '도시 환경'의 상관관계를 흥미롭게 밝혀냈다.

연구진이 숲속과 도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기를 직접 잡아 분석해 보니 서식지에 따라 모기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깊은 숲속에는 주로 토종 빨간집모기류가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쁘게 가꾼 아파트 정원이나 도심 공원에서는 텅기열 등을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가 무려 81.3%라는 높은 비율로 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답은 인간이 만든 '도시 조경'에 있었다. 도시 미관을 위해 심은 수많은 외래종 꽃과 화려한 관상식물들이 흰줄숲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당분을 24시간 내내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 뷔페 식당' 역할을 해준 것이다. 특히 흰줄숲모기는 다른 숲속 모기들에 비해 몸집이 작아서 체내 에너지 보유량이 적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풍부한 식물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당분을 자주 보충하게 되고, 이렇게 힘을 얻은 모기들은 수명도 늘어나 더 적극적으로 인간을 공격(흡혈)하게 된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준다. 이제는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살충제를 대량 살포하는 방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모기에게 영양가를 주지 않는 토착 식물 위주로 조경을 다변화하는 등, 모기와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매해 여름 모기와의 전쟁 향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Morgen Vander Giessen et al. Effect of landscape heterogeneity on mosquito abundance and sugar feeding behavior. *Journal of Medical Entomology*, 2026, 63(1)

IV-2. 2026년 주요 통계 정보

[표 1] 주요 모기 매개 감염병 및 발생원

모기 매개 감염병	주요 매개체	주요 발생원	'25년 환자(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일본뇌염	작은빨간집모기, 빨간집모기	논, 늪, 맑은 물 웅덩이	7	0
말라리아	얼룩날개모기류	논, 수로, 물 웅덩이	545	56
웨스트나일열	빨간집모기, 금빛숲모기	정화조, 하수구, 인공용기	0	0
뎅기열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자연적으로 조성된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0	110
황열			0	0
치쿤구니아열			0	9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3

[표 2] 2026년 지역별(국내/해외) 감염병 신고 현황

단위: 발생수(명)

구분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국내 발생	해외 유입
계	0	0	0	0	0	32	0	0	0	5	0	2
1월	0	0	0	0	0	6	0	0	0	0	0	0
2월	0	0	0	0	0	6	0	0	0	1	0	0
3월	0	0	0	0	0	4	0	0	0	0	0	0
4월	0	0	0	0	0	1	0	0	0	1	0	1
5월	0	0	0	0	0	1	0	0	0	0	0	0
6월	0	0	0	0	0	8	0	0	0	0	0	0
7월	0	0	0	0	0	6	0	0	0	3	0	1

본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dportal.kdca.go.kr/pot/is/inftnsdsEDW.do>)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26.8.7. 기준, 매해 통계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표 3] 2026년 검역구역 내 종별 누적 발생 현황('26. 3.~ '26. 7.)

단위: 개체수(마리)

순번	모기 종별	개체수(%)
합계	총 18종	26,009(100.0)
1	빨간집모기(<i>Culex pipiens</i>)	21,142(81.3)
2	흰줄숲모기(<i>Aedes albopictus</i>)	1,690(6.5)
3	금빛숲모기(<i>Aedes vexans</i>)	765(2.9)
4	반점날개모기(<i>Mansonia uniformis</i>)	595(2.3)
5	얼룩날개모기류(<i>Anopheles spp.</i>)	574(2.2)
6	이나토미집모기(<i>Culex inatomi</i>)	270(1.0)
7	큰검정들모기(<i>Armigeres subalbatus</i>)	234(0.9)
8	토고숲모기(<i>Ochlerotatus togoi</i>)	210(0.8)
9	한국숲모기(<i>Ochlerotatus koreicus</i>)	207(0.8)
10	등줄숲모기(<i>Ochlerotatus dorsalis</i>)	185(0.7)
11	작은빨간집모기(<i>Culex tritaeniorhynchus</i>)	75(0.3)
12	금빛어깨숲모기(<i>Aedes lineatopennis</i>)	39(0.1)
13	동양집모기(<i>Culex orientalis</i>)	7(0.1)
14	줄다리기집모기(<i>Culex vangans</i>)	6(0.1)
15	노랑늪모기(<i>Coquillettia ochracea</i>)	4(0.1)
16	에조숲모기(<i>Aedes esoensis</i>)	4(0.1)
17	반점날개집모기(<i>Culex orientalis</i>)	1(0.1)
18	산숲모기(<i>Ochlerotatus oreophilus</i>)	1(0.1)

IV-2. 2026년 주요 통계 정보

[표 4] 2026년 검역구역 내 7월 모기 종별 발생

단위: 개체수(마리)

순번	모기 종별	개체수(%)	'25년 7월(전년)	
			개체수	증감
합계	총 17종	10,808(100.0)	6,877	▲3,931
1	빨간집모기(<i>Culex pipiens</i>)	8,621(79.8)	4937	▲3,684
2	흰줄숲모기(<i>Aedes albopictus</i>)	897(8.3)	865	▲32
3	얼룩날개모기류(<i>Anopheles</i> spp.)	334(3.1)	266	▲68
4	반점날개숲모기(<i>Mansonia uniformis</i>)	242(2.2)	5	▲237
5	금빛숲모기(<i>Aedes vexans</i>)	191(1.8)	189	▲2
6	큰검정등모기(<i>Armigeres subalbatus</i>)	118(1.1)	83	▲35
7	토고숲모기(<i>Ochlerotatus togoi</i>)	104(1.0)	110	▼6
8	한국숲모기(<i>Ochlerotatus koreicus</i>)	97(0.9)	303	▼206
9	등줄숲모기(<i>Ochlerotatus dorsalis</i>)	92(0.9)	27	▲65
10	작은빨간집모기(<i>Culex tritaeniorhynchus</i>)	60(0.6)	61	▼1
11	금빛어깨숲모기(<i>Aedes lineatopennis</i>)	35(0.3)	1	▲34
12	줄다리기집모기(<i>Culex vangans</i>)	6(0.1)	0	▲6
13	에조숲모기(<i>Aedes esoensis</i>)	4(0.1)	0	▲4
14	노랑늪모기(<i>Coquillettidia ochracea</i>)	3(0.1)	3	-
15	동양집모기(<i>Culex orientalis</i>)	2(0.1)	1	▲1
16	반점날개집모기(<i>Culex orientalis</i>)	1(0.1)	2	▼1
17	산숲모기(<i>Ochlerotatus oreophilus</i>)	1(0.1)	1	-
18	이나토미집모기(<i>Culex inatomi</i>)	0(0.0)	26	▼26